

디지털 사진 출력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른 '포토북 제작 솔루션'

2009 디지털포토포럼 및 사진기자재전 기자 간담회



대한사진영상신문사가 주최하는 2009 디지털포토포럼 및 사진기자재전 기자 간담회가 지난 6월16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11층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는 대한사진영상신문사, 광학세계, 사진예술, 디시인사이드, 다나와, 디지털캐치 등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후지필름(주)의 신개념 포토 솔루션 '후지 포토매니저 시스템', 송화시스템기술(주)의 포토북 제작 솔루션 '픽토리', 한국HP(주)의 디지털 포토 솔루션 'HP RPS' 등 각 제품 소개와 공급사의 마케팅 전략 발표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국내 사진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스튜디오 및 미니랩 현상소의 대응 전략을 발표하는 세미나장과 사진기자재 업체들의 관련 제품 전시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사진시장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 변화를 가져왔다. 필름 카메라 시절처럼 단순 낱장 사진 인화에 만족하지 않고 개개인의 성향을 세밀하게 반영한 포토북, 아트프린팅, 다양한 팬시 상품 등으로의 소비패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주목하고 최근 한국후지필름, 한국HP, 한국코닥,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등에서는 RPS(Retail Publishing Solution)와 후가공 장비 사업을 강화하면서 최근 디지털 사진 출력시장의 '핫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포토포럼 및 사진기자재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후지필름, 송화시스템기술, 한국HP 등은 사진기자재 전시장에 제품 전시와 함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사의 최신 포토북 솔루션 및 사진 관련 장비를 소개하고 향후 마케팅 전략에 대해



▶지난 6월16일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HP의 RPS 비즈니스 아태지역 총괄 매니저 Nans씨가 HP의 RPS 비즈니스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각 업체별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후지필름의 강신황 팀장

한국후지필름(주) 원스톱 사진 부가가치 솔루션 '포토매니저' 서비스 실시

한국후지필름(대표·이창균)은 포토북, 포토앨범 등 다양한 사진 관련 상품들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사진제작 솔루션인 '포토

매니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인화업계 선두주자인 한국후지필름에서 디지털 카메라 보급과 함께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인화수요를 끌어올리고 미니랩 점주들의 사업의지를 북돋아주는 대안으로 개발한 것이 '포토 매니저' 시스템.

이 시스템은 통합주문 소프트웨어인 '포토룩스(Photolooks)', 상품의 제작을 대행하는 제작센터 '센터라보', 포토북 생산기체인 '포토모아' 등 3가지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었다. 이중 포토룩스는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포토매니저 시스템의 모든 상품들을 원격으로 주문받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고객이 주문을 하면 CD를 배포한 사진관에 자동으로 매출이 기록되므로 소비자와 사진관 점주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센터라보는 기존 충무로 후지필름 사진기술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팬시상품 및 외주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며 다양한 업계와의 연계생산을 통한 B2B사업도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토모아는 포토북을 주문 및 수령을 원하는 고객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고안된 즉석 포토북 상품 제작기기로 한국후지필름의 독자기술로 개발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에너지 안전마크도 획득했다. 이 기기는 사진관 및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1500여개의 오프라인 사진 인화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후지필름은 이번 포토 매니저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사진 인화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후지필름의 FDi 현상소, FDi 플러스, 포토이즈와 같은 로드샵 사진관은 물론 온라인 사진 인화 사이트, 사진 관련 상품 소싱을 원하는 기업체 및 개인 등 서비스 대상의 폭을 넓게 보고 있다.

한국후지필름의 조경수 마케팅 실장은 "최근 증가한 사진 인화 수요는 단순 사진 인화보다 다양한 사진 액세서리

를 활용한 부가서비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양한 팬시 인화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며 "포토매니저는 소비자 수요에 발맞추어 사진 관련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HP의 김상현 전무

한국HP(주) 이미지 콘텐츠 출력 사업 진출

한국HP(대표·최준근)는 이미지 콘텐츠 출력 서비스인 리테일 퍼블리싱 솔루션(RPS:Retail Publishing Solution)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RPS는 HP의 다양한 프린팅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라이선스가 있는 이미지 콘텐츠를 출력, 상품화하는 비즈니스로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상품으로 제작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HP RPS는 사진 스튜디오 및 출력업체 등과 같이 출력 관련 사업장과 창업자들에게는 이미지 콘텐츠 출력 서비스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프트웨어는 물론 별도의 저작권 지불이 없는 라이선스 콘텐츠를 지원해 이미지 출력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HP는 현재 소니,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의 글로벌 라이선스 이미지 콘텐츠는 물론, 닥터세우스, 마벨, 시세미 스트리트 등 어린이용 엔터테인먼트 소재 및 스포츠, 아트, 음악 등 여러 분야의 라이선스 콘텐츠 확보와 웹 솔루션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국내 시장을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라이선스 콘텐츠를 발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장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 콘텐츠 출력 사업을 위해 한국HP는 다양한 하드웨어 신제품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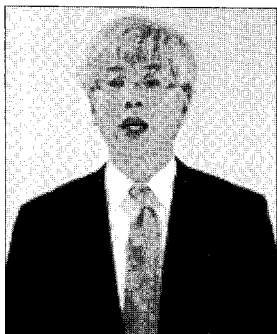
새롭게 선보이는 'HP 포토스마트 ML1000 미니랩 프린터'는 4X6인치 사진을 시간 당 최대 1500매까지 빠르게 출력할 수 있다. 또 'HP 오더 스테이션'은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터치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편집 기능을 이용, 포토북, 포스터 등으로 현장에서 직접 상품화하고 주문 입력할 수 있다.

HP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했다. '포토센터 4.1'은 고객이 직접 다양한 사진 출력물을 편집,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글버전으로 지원한다. 또 HP 매장관리시스템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조정, 출력 장비의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 고장이나 시스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매장 관리자에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공한다.

HP는 이와 같은 RPS사업의 일환으로 'HP 포토카페'를 파트너 사를 통해 운영 중이다. 'HP 포토카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디지털 사진 편집으로 나만의 포토북, 포스터 등을 제작할 수 있다.

한국HP 이미징프린팅그룹장 조태원 부사장은 "향후 리테일 프린팅 시장은 단순한 프린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라이선스가 있는 콘텐츠를 상품화해 제공하는 RPS 시장으로 확대, 전개 될 것"이라며 "HP가 제공하는 RPS 솔루션은 사업 확장 및 창업을 기대하는 예비 사업가는 물론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을 기대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적합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시스템기술의 송준석 대표

**송화시스템기술(주)
포토북 제작용 '픽토리 시스템'으로 세계시장 공략**

인터넷사진관 OP 운영과 함께 디지털 이미징 솔루션 개발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송화시스템기술(대표·송준석)이 신개념의 포토북 제작기기인 '픽토리 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포토북 제작시스템이 일련의 작업과정이 길고 복잡했었다면 픽토리 시스템은 쉽고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픽토리 시스템은 은염 사진뿐 아니라 기존앨범 시스템으로 힘들었던 잉크젯 및 레이저 프린트 등 다양한 출력물로도 포토북을 만들 수 있으며 누구나 15분 이내에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픽토리 시스템과 함께 제공하는 픽토리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사이즈의 포토북과 단추앨범, 핸드폰 고리앨범인 '쇼북', 캘린더 및 덕담엽서, 초대장, 각종 축하카드 등 다양한 템플릿 제공으로 온라인에서 공급하는 전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작,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픽토리 시스템은 기존 앨범장비와 차별화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기본 장비를 공급하며 소모품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한다. 기존 드라이 마운트 공급가가 타사 대비 최고 3/1

가격으로 저렴하며 소모품의 사이즈도 전 종류의 앨범 및 포토 북 사이즈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대형화된 앨범장비와는 달리 초소형으로 제작되어 좁은 공간 어디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간효율을 극대화했으며, 기계는 작지만 12인치 대형사이즈까지 만들 수 있어 작지만 강한 데스크탑형 앨범 제작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화시스템기술의 송준석 대표는 "픽토리 시스템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데스크탑형으로 만들어진 신개념의 특허출원 포토북 제작 시스템으로 15분 이내에 나만의 포토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남미, 동남아, 유럽 등에 진출을 시도, 본격적인 수출을 위하여 CE, UL 인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진기자재전-포토북 등 최근 디지털 출력 시장의 흐름을 '한 눈에'

스튜디오 및 미니랩 현상소 운영자와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2009 디지털포토포럼 및 사진기자재전에서는 포토북 및 미니앨범, 앨범 및 액자, 의상 및 소품, 스튜디오 조명, 출력 장비 및 미디어, 모니터, 편집 소프트웨어, 카메라 액세서리, 팬시상품 등 스튜디오 장비를 총망라해 전시했다. 포토북 및 미니앨범 부문에선 ▲ 한국HP IPG-건식 미니랩 프린터 'HP 포토스마트 MLI1000', HP 포토센터 4.1, HP RPS(Retail Publishing Solution) ▲ 송화시스템기술(주)-포토북 제작 시스템 '픽토리' ▲ T&ST-유니바인드 포토북 제본기 ▲ 한국후지필름(주)-토털 포토 서비스 '후지 포토매니저 시스템', 포토북 샘플 ▲ 이탈리아인터내셔널-접착식 미니앨범 제작 솔루션 ▲ 엔터스튜디오-디지털 포토 상품 제작기, 명함 제작기, 재단기, 평판프린터, 템플릿(유치원앨범) 등이 출품됐다.



▶지난 6월 16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11층에서 열린 2009 디지털포토포럼 및 사진기자재전이 열렸다.